

### 몽골 라오스 봉사 지구촌공생회 대학생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는 몽골과 라오스에 대학 생 단기봉사단을 파견했다. 1차로 28명의 학생들이 지구촌공생회가 운영하는 몽골 향유구 청소년센터에서 7월 17일-8월 1일 영어 및 한국어, 컴퓨터 교육 등 교육 봉사를 펼친다. 라오스 나송 옴마 마을에서는 2차 28명의 학생들이 7월 29일-8월 12일 학교보수 등 봉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지구촌공생회와 꿈을 이루는 사람들(대표 진오)은 8월 8일 11시 경부 구미 '이주노동자 및 이주여성 센터' 증축 준공식을 개최한다. 준공식에는 1000만원을 후원한 이사장 월주 스님을 비롯해 호계원장 법동 스님(도리사 주지)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덕현 기자**

### 전용태 장로 사퇴 종교편향 행위로 논란

성서화운동본부, 홀리클럽 이사장 등 개신교 복음화운동의 주축으로 활동해 안산시 민원즉심관 임용 및 활동에 있어 '종교편향' 지적을 받아온 전용태 장로가 7월 17일 민원즉심관직을 사퇴했다.

법불교대책위는 7월 24일 "전용태 민원즉심관이 일신상의 이유로 지난 14일 사직서를 제출해 17일 최후 처리됐다"고 밝혔다.

전용태 장로는 지난 2월 안산시 민원즉심관으로 임명된 이후 인천국제성서축전 상인준비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후 인천국제성서축전 설명회와 감사예배에 참석하는 등 '종교중립을 지켜야 할 공직자 직분에 맞지 않다'는 논란을 빚어왔다. **노덕현 기자**

# “조계종 미래 인적·조직 쇄신에 있어”

## 불교미래사회연구 정책좌담회... 현응·법안 스님 등 참여해 현안 논의

오는 10월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종단의 현실 진단과 과제 점검을 하는 자리에서는 인적·조직 쇄신에 불교의 미래가 달려있음이 재확인됐다.

불교미래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7월 29일 한국역사문화기념관에서 '변화와 합리적 개혁을 이야기한다'를 주제로 정책좌담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현응 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원)과 법안 스님, 손혁재 한국 NGO학회장, 윤남진 참여불교재가연대 NGO리서치센터 소장이 참여했다. 사회는 인터넷언론 '미디어부터' 이화종 대표기자가 맡았다.

좌담회는 '1994 종단개혁 시스템은 유효한가'와 '변화와 개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의 두 주제로 나누어 진행됐다.

현응 스님은 "조계종 종헌에는 선불교 중심이 아니라 남아있다"며

"1994년 개혁 이후 어떤 불교적 가치를 포고하고 어떤 스님들을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윤남진 소장은 "교구 국장선거까지는 종무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직과 행정직을 나눠 선발하자"고 제안했다.

법안 스님은 "(윤 소장이 말한) 국장선거 전 전문적으로 훈련받아야 하는 인적·조직 쇄신"이 가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교역직 종무원은 전문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현재 조계종은 중앙종무기관 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 선출자도 승람만 되면 뽑힐 수 있는 지나치게 개방적인 구조"라며 "호계위원, 법규위원, 소청심사위원 등은 자질과 능력 검증은 거쳐 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지인사에는 반드시 인사고과를 적용하고, 직영 사찰·특별법담금 사찰은 순환보직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혁재 회장은 "교구장 선출에 재가신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호계위원 선출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현응 스님은 "호계원은 제도는 도입했지만 운영 여건이 성숙되지 못했다"면서 "중앙종회에서 호계위원 선출 기준을 모호한 것은 큰 문제"라 지적했다.

이어 법안 스님은 "호계위원 선출 기준이 필요하다. 종무직 일정기간 종사 자격과 도덕성 등을 감안해 자격기준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혁재 회장은 "호법부는 사전에 방 업무로 주무하고, 심판은 호계원이 맡는 것으로 업무분장을 새로 할 필요가 있다"며 "배심제도를 도입해 배심에서 처벌여부를 가리고 호

계원이 양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말했다.

호법부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법안 스님은 "호법부가 기소권을 독점하다보니 기준이 없다. 전례도 없고, 비구니 조사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고 힘없는 사람만 기소되는 실정"이라 주장했다. 이어 스님은 "호법부의 개혁은 종책은 실효되고 사람만 모이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윤남진 소장은 "대의 입법기구의 대표성 문제를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중앙종회의 권한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교미래사회연구소는 좌담회 원문을 자료집으로 제작해 전국 사찰 및 교계 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 “종교편향 종식에 앞장”

## 법불교대책위 '2009 대표자회의' 서 결의



각 종단 대표와 재가단체들이 종교편향 종식을 서원하고 있다.

1주년을 맞은 '헌법과 교·종교편향 종식 법불교대책위원회'(이하 법불교대책위)가 신임위원장 선출 이후 신년 계획을 발표하고, 종교편향 종식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했다.

법불교대책위는 7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2009년 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대표자회의에는 조계종 총무부장 원학 스님(전임 법불교대책위원장), 제주 관음사 주지 원종 스님, 태고종 총무부장 능해 스님 등을 비롯한 각 종단 대표 스님들과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박광서 대표 등 불교계 단체 대표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대표자회의에서는 대책위원장 선출 건을 비롯해 대책위 활동보고, 조직정비, 활동방향, 명칭 변경 건이 차례로 논의됐다.

신임 대책위원장으로서는 7월 14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으로부터 위촉받은 가평 백련사 주지 승원 스님(전 조계종 기획실장)이 추인 형식으로 만장일치 선출됐다.

승원 스님은 "불교가 최근처럼 혼

들린 적이 없다. 모든 불교도들의 힘을 모아 종교편향 행위를 종식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자회의에서는 사무총장으로 헤일 스님을 선출하고, 상시 의결기구인 상임대책위 구성과 정책 기획위, 사회연대위 등 4개 소위 구성, 사이버모니터링단 등 활동기구 설립 등을 결의했다.

또 대책위는 향후 징계조항이 없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 추진을 비롯해 △종교차별 지역별 교육 및 대중강좌 개설 △8·27법불교대책위 홈페이지 제작 및 웹진 발간 △법불교도대회 1주년 기념세미나 및 학술세미나 개최 △국가복음화운동 대응 전략 수립 사업 등 추진 계획도 밝혔다.

한편, 법불교대책위는 한국불교 기자회견과 공동으로 8월 24-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법불교도대회 1주년 기념 사진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 “삼보일배 처벌 대상 아니다”

## 대법원 판결

삼보일배는 사회상규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7월 27일 전국플랜트건설노조가 집회 이후 삼보일배 행진을 한 것에 대해 유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플랜트건설노조 조합원 7명은 지난 2005년 5월 서울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린 '임단협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에 참가해 2차선 도로에

서 삼보일배 행진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대법원 재판부는 "삼보일배 행진은 진행속도가 느려 폭력성을 내포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삼보일배 행진은 사회상규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행위로 '표현의 자유'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다. 삼보일배가 정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 동국대 로스쿨 탈락 일부 위법

동국대 로스쿨 탈락과 관련해 법원이 일부 위법 판결을 했다.

동국대 법과대학 정용상 학장은 "7월 28일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에서 열린 동국대 로스쿨합소심판에서 로스쿨예비인가과정에 취소 사유가 있음을 확인하는 사정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 학장은 "동국대측 항소는 기각됐지만, 동국대

에 내리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 가거부처분은 위법하다는 주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대측은 행정부에 로스쿨 정책 변경을, 입법부에 로스쿨 관련 법안의 개정 등을 각각 촉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법원에 상고하는 한편 교과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동섭 기자**

# 제주 관음사 토지 경매처분 위기

## 전임 주지 명의 대여금 상환 문제 불거져

조계종 제23교구 본사인 제주 관음사 소유 토지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관음사 주지 원종 스님은 최근 "2007년 관음사 주지선출 과정에서 내용을 일으켰던 관계자 3인이 대여금 형식으로 전임 주지 때 건넨 21억 원에 대한 청구소송을 관음사를 상대로 제기해 사찰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관련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관음사 소유의 모든 토지가 매각될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주 관음사의 부채는 42억 원(기채승인부채 17억, 소송(대여금)부채 21억, 불사 미지급금 4억 등). 40억이 넘는 부채를 관음사 재정으로 상환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 이에 대해 원종 스님은 "종단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 주지가 임의로 돈을 빌렸고 어디에 사용했는지 명확치 않은 부채를 전 관음사가 갚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21억원 대여금과 관련된 민·형사상 소송은 11건

에 이른다. 스님은 "매일 같이 줄어든 소송으로 포교나 신행활동이 사실상 어려워 재정을 마련할 여건도 안 된다. 월 1000만원 가량의 이자상환도 벼락 종무원 보시금도 제대로 못 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근 관음사가 대여금 21억중 3억6000만원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관음사 예금계좌가 압류됐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가 결정됐다.

다행히 경매 직전, 사찰에서 공과금을 걷고 경매를 중지한 상태지만, 패소하면 삼보장재의 유실은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조계종 재무부 관계자는 "종단의 기채승인을 받아도 관음사 소유 토지를 담보로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데, 모두 가압류된 상태 대출에 어려움이 크다"며 "종단과 각 교구본·말사의 도움이 필요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원종 스님은 "삼보장재를 지켜낼 수 있도록 종단과 종도들의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조동섭 기자**



前 세계 '미세스 진', 현 방필석 촬영

## 신생아 ★오행으로 이름을 지어주면 오복이 오네★

### 자녀들의 이름이 좋은지 나쁜지 알고 계십니까?

내가 내 이름 뜻도 모른다면 무엇을 따로 알 것을 구하겠는가?  
이름만 알려주어도 신비한 오행비법으로 건강, 적성, 재물, 미래운세 등 정확하게 무료상담하여 드립니다.

# 작명

이름을 잘 지어주면은  
자식이 효도하고 아버지가 즐거우네 (子孝雙親樂)  
집안이 화목하고 만사가 이루어지네 (家和萬事成)

이름은 평생 같이할 동반자요  
잘못 만나면 고생이요 잘 만나면 행복이요

대다수 획수 작명은 말은 되지만 뜻이 맞지 않으니  
뜻있는 곳에 참 이름이 있네! 뜻 있는 곳에 씨앗을 뿌리게나!  
바닷물에 씨앗을 뿌리면 썩이 트겠는가?

고객이 인정한 한 장소에 20년 작명  
국가공인 한자 1급 3번 합격

### ♪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전화 ♪

## ☎ 02)738-5577

\* 작 명 : 국, 내외 우편발송 \*

서울특별시 중로구 견지동 110-43 등용문빌딩 201호 (종각역 2번 출구) **조계사연**  
**한국민속철학연구소 소장 방 필 석**

### 운명을 바꾸는 아호, 개명

## 주역 개인지도

### 방필석 대외활동

- 前 인도 대통령 초청 방문
- 前 스리랑카 대통령 초청 방문
- 前 스리랑카 문화부 장관 초청 방문
- 서울 보명사 창건 공덕주
- 前 스리랑카 수상 서울 보명사 참배
- 前 스리랑카 수상과 함께 청와대 초청방문
- 現 한, 스리랑카 문화교류협의회
- 제 14차 세계불교도우의회 한국대표 스리랑카 콜롬보대회 참석
- 제 20차 세계불교도우의회 한국대표 호주 시드니대회 참석
- 세계불교승가회 대만 제오계 대회 한국대표단 홍보차 참석
- 일본 비구중 국제평화광명대회 참석
- 인도 녹야원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
- 現 서울 보명사 주역강의 강사
- 前 세계불교도 우의회 홍보차장
- 現 한국역리학회 중앙학술위원
- 現 한국민속철학연구소장